

입문

보살사상의 체계적 학술서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이봉순 지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함축시켜 표현할 수 있는 보살사상은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살사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데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 책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초기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보살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10년 가까이 보살사상 연구에 매진해 온 이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보살의 의미와 보살의 실천행법, 수행의 진전과 일반의 중독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부파불교의 대표적 학파인 설일체유부(設一切有部)와 대중부(大眾部) 등의 보살사상을 살핀다. 불광출판부, 15,000원 (02)420-3200

오늘을 사는 지혜 - 禪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항봉선 지음



책 제목 그대로 '생활선'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다.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복잡다문한 현실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저자 항봉선님은 역설한다. 선의 역사와 특징, 선과 도가사상 등 선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 설명했다. 마조와 조주스님의 일화록 별도의 장으로 마련해 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선에 관심이 있거나 참상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밀알, 8,500원 (02)529-0140

에세이

어머니의 사랑 그 깨달음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함갑진 지음



기원후대사와 해골에 얽힌 유명한 일화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말한다. "내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다.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간의 허약함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내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다." 영화계의 대부로 불리는 함갑진씨(한진출판주식회사 회장)의 이 책은 성장기부터 지금까지의 괴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그린 자전 에세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배경과 영화 '말안장령'을 완성하기까지의 고통 등 75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동아일보사, 7,500원 (02)361-0991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악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혜성님 지음



사람은 아르면 악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 악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악은 다름 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을 먹으면 낮지 않는 별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끝이 없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받아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를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85

기타

마하리쉬의 자기 탐구

■있는 그대로/마하리쉬 지음



1950년 입적하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였던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 그의 가르침의 궁극은 해탈에 있다. 그리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자기탐구'라고 부른 수행법을 통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다. 참자의 본성은 무엇이며, 참자가 탐구를 위한 이론과 수행방법 등을 문답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장 앞에 그 장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왔다. 무엇보다도 질문자의 수준에 맞는 답변으로 '자기'를 찾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문화, 8,500원 (02)403-1207

사찰음식-현대적 관점에서 해석

■선식의 비밀/최진호 지음



사찰음식이 왜 건강에 좋은가를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불가의 식습관이 불교사상에서 비롯됐음을 아울러 밝혀내고 있어 부처님의 '건강과 의학'에 관한 사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사찰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왜 알알음식의 원칙을 강조해 왔는지, 그리고 채(茶)가 어떻게 선승의 수행식이 될 수 있는지, 곡자를 전사의 '해탈의 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물론 각종 문헌과 경전을 토대로 승가의 식생활을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삼과골, 12,000원 (02)318-4041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31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지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잘못을 목치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에게 삶에 대한 꾸짖음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종가대좌 단면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를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숲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엮음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와 같은 책.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를 비롯해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성구(聖句), 불교의 자연관, 불교사상과 환경보존, 사찰환경보존,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환경교육, 불교의 생명사상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법정, 법륜스님을 비롯 목정배 오형근 박선영 연구원 전 재상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석했다. 아름다운 세상, 17,000원 (02)278-6956



금주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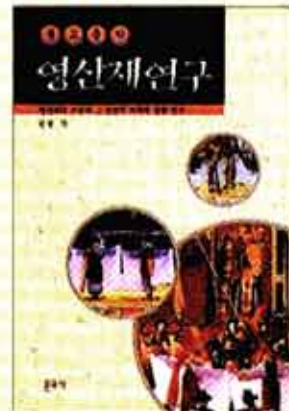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영산재 연구/법현스님 지음

불교의 의례의식인 영산재의 진행은 법패(梵唄)로 불리운다. 불교음악인 법패는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서, 장단과 화성이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줄어들어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맥을 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재의 구성과 법패의 기능, 작법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영산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불교음악의 세계 두 곳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알차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는 학인스님들뿐만 아니라 영산재에 관심있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길잡이 충분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이다

운주사 15,000원 (02)720-9372



시로 만나는 자아

■변명은 슬프다/권경인 지음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아 나선 사람. 그에겐 맑디맑은 영혼의 울림이 있고, 고통을 기쁨으로 치환하는 의지가 있다. 권경인 시인의 7년만의 시집 <변명은 슬프다>에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어느덧 풀란에 서 있는 우리들의 허무와 애타움으로 이끌어 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한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단절이러기보다는 친화성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함부로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물처럼 잔잔히 흘러갈 뿐이다. 그의 시집에 이런 매력의 가독 물어낸다. 죽고 소멸함으로써 비로소 새 우주를 일태하는 불교적 윤회관과 동양적 세계관은 시마다 모습을 드러내 보여며 깨달음으로 향한다. 열림원, 7,000원 (02)733-5045



Large advertisement for Pohangjeol (포항제철) featuring a map of Korea and the text '제2건국의 큰 산맥' (The Great Mountain Range of the 2nd Construction of the Nation). It includes a message about national pride and economic growth, and the slogan '철강으로 나라사랑' (Love the Country with Steel) and '포항제철' (Pohang Iron and Steel).